

The Call to be a Full-Time Intercessory Missionary **전임 중보기도 선교사로의 부르심**

The Lord is calling people to a full-time ministry occupation that I refer to as an intercessory missionary. I define an intercessory missionary as one who does the work of the kingdom from the place of prayer and worship, while embracing a missionary lifestyle and focus. Others may define this term in a different way. At IHOPKC, as a rule, we ask those who embrace this full-time occupation of “intercessory missionary” to commit to 50 hours per week, including being in the prayer room for at least four hours a day, six days a week.

주님은 사람들을 내가 부르는 중보기도 선교사라고 부르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고 계신다. 나는 중보기도 선교사를 선교사적인 삶과 초점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HOPKC에서 “중보기도 선교사”라는 전임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주일에 50 시간을 헌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는 일주일의 6일 동안 하루에 최소한 4시간씩을 기도실에서 있는 것을 포함한다.

People sometimes ask me what an intercessory missionary is and where it is in the Bible. In principle, this calling and occupation is found throughout the Bible. In this article, I will briefly mention where this calling is found in end-time prophecy,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hroughout Church history, and how it is being embracing today in contemporary ministries.

사람들은 때로 내게 중보기도 선교사가 무엇인지 묻고는 하며,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묻는다. 원칙적으로 이 부르심과 역할은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이 부르심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어떤 마지막 때 예언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한 교회사를 통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며, 오늘날의 사역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Though the New Testament gives only a few specific ministry titles and job descriptions, it does present intrinsic values, such as winning the lost, caring for people, helping the poor, and praying. “Apostle” is the title with the clearest job description in the New Testament. We don’t find the title of senior pastor, marriage counselor, youth pastor, children’s pastor, or outreach pastor, etc. My point is that most of the titles we use in the Church today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신약은 몇 가지 특정한 사역 직분과 역할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기도하는 것 등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사도”는 신약에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되어있는 직분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담임 목사나, 결혼 상담가, 청년 목사, 아동부 목사, 또는 선교부 목사 등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나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칭들은 신약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다.

The Bible doesn’t give a comprehensive list of ministries that the Spirit has us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every culture in the different generations throughout church history. The Church has liberty to name specific ministry focuses in a way that applies to their generation and culture, as long as biblical values are upheld.

성경은 교회사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정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역들의 이름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경적인 가치가 유지되는 한, 교회는 자신의 세대와 문화에 적용되는 특정한 사역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있다.

The Value of Night and Day Prayer in Heaven **주야기도가 하늘에서 가지는 가치**

Revelation 4–5 describes the worship order around God’s throne. Those nearest the throne magnify Him and agree with His purposes in 24/7 worship and intercession. The worthiness of God demands 24/7 worship—this value will be embraced and expressed forever.

계시록 4-5 장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일어나는 예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은 24/7 예배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며 그분의 목적들에게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24/7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이 가치는 영원히 받아들여질 것이며, 영원히 표현될 것이다.

The four living creatures...do not rest day or night, saying: "Holy, holy, holy..." (Rev. 4:8)

⁸네 생물은 ...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 (계 4:8)

Jesus exhorted us to pray that Hi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One aspect of God’s kingdom being expresse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s worship. God’s desire to be worshiped on earth as He is in heaven has not changed. The Holy Spirit has not emphasized this globally through history, but now He is emphasizing it to some in many nations. The value of the worship around the throne is timeless. The applications of it on earth have differed in each generation and culture.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6:10).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는 예배가 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예배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에는 변함이 없다. 성령님은 아직 역사를 통해 이를 전 지구적으로 강조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를 많은 나라들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 보좌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각 세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이 땅에서 적용되었다.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End-time Prophecy

마지막 때 예언에서의 중보기도 선교사

The Holy Spirit will establish the most powerful prayer and worship movement in history. The Scriptures give indications of the significance of prayer in the end times (Lk. 18:7–8; Rev. 5:8; 8:4; 22:17; Isa. 24:14–16; 25:9; 26:8–9; 27:2–5, 13; 30:18–19; 42:10–13; 43:26; 51:11; 52:8; 62:6–7; Jer. 31:7). It is one of the major themes of end-time prophecy; the conflict at the end of the age will be between two global worship movements. The Antichrist will empower a worldwide, state-financed, false worship movement (Rev. 13:4, 8, 12, 15). However, the global prayer movement led by Jesus will be far more powerful.

성령님께서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와 예배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눅 18:7–8; 계 5:8; 8:4; 22:17; 사 24:14–16; 25:9; 26:8–9; 27:2–5, 13; 30:18–19; 42:10–13; 43:26; 51:11; 52:8; 62:6–7; 렘 31:7). 이것은 마지막 때 예언에 있어서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개의 지구적 예배 운동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거짓 경배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계 13:4, 8, 12, 15).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이끄시는 지구적인 기도 운동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Isaiah prophesied concerning prayer ministries that would continue 24/7 until Jesus returns—this is when Jesus will restore Jerusalem as a praise in the earth. Isaiah spoke of the watchmen-intercessors the Lord Himself would appoint and set in place who will not keep silent day or night.

이사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24/7 계속될 기도 사역에 대해 예언했다. 또한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회복하시는 때이다. 이사야는 주께서 직접 파수꾼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밤낮으로 잠잠치 않도록 하실 것에 대해 말했다.

*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appointed watchmen [intercessors]; **all day and all night they will never keep silent. You who remind the LORD, take no rest for yourselves; 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Isa. 62:6-7, NAS)***

⁶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중보 기도자]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This clearly emphasizes that, in the end times, God will raise up 24/7 prayer ministries that will never be silent until Jesus returns. The 24/7 dimension of this promise implies that some intercessors and ministries are called to engage in this as a full-time occupation. God’s promise to appoint intercessors indicates that He will make a way for them to walk in this calling, which includes financial provision.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결코 잠잠치 않을 24/7 기도 사역들을 일으키실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게 있다. 이 약속에 있는 24/7 의 측면은 어떤 중보 기도자들이나 사역들이 전임으로 이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중보자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그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 걸어들 수 있도록 재정적인 공급을 포함한 일들을 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Isaiah is referring to New Testament believers (who will be on the earth when Jesus returns)—some will be full-time occupational intercessors. Their hard work in prayer is meant to serve and strengthen the prayer ministries in local churches in their region and to be catalytic by inspiring and supporting others in prayer.

이사야는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을 사람들). 어떤 이는 전임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일 것이다. 그들이 기도에 힘을 다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지역 교외의 기도 사역을 섬기며 강하게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지탱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Only one generation will see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to appoint or set watchmen (intercessors) in place to cry out all day and all night *until* Jerusalem becomes a praise in the earth. This prophecy speaks specifically of prayer ministries being established by the Lord that will continue *until* He returns. Jerusalem will become a praise in the earth only after Jesus returns. At that time, all the nations will see Jerusalem as Jesus’ own city, as the city of the Great King (Jer. 3:17; Mt. 5:35).

오직 한 세대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즉 파수꾼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찬송이 되기까지 (until) 밤낮으로 부르짖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until) 계속될, 주님이 세우시는 기도 사역들을 말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때에 모든 열방은 예루살렘이 예수님 자신의 도시, 큰 왕의 도성이 된 것을 볼 것이다 (렘 3:17; 마 5:35).

Isaiah’s prophecy speaks of a “spiritual wall” of intercession from which the *end-time* watchmen-intercessors will cry out 24/7 for the release of God’s promises. Ezekiel also spoke of “spiritual walls” consisting of prayer (Ezek. 13:3-5; 22:30). God will establish end-time watchmen-intercessors in their place to function as a “wall of prayer.” These watchmen are to “make the wall” by standing in the gap in prayer before God and the people so that the land may be blessed instead of destroyed.

이사야의 예언은 중보 기도의 “영적 성벽”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마지막 때**의 파수꾼-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기를 24/7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에스겔 또한 기도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벽들”에 대해 언급했다 (겔 13:3-5; 22:30).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파수꾼,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기도의 성벽”의 역할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도로 무너진 곳을 막아 서며 “성벽을 만드느”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땅은 파괴되기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Are you grasping the gravity of this promise? Through Isaiah, God promised sovereignly to appoint intercessors and establish them in the work of intercession that will never stop until Jesus returns. This will include full-time occupational intercessors who will stand on the wall of intercession to cry out for God’s purposes for Jerusalem.

당신은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중보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을 주권적으로 약속하셨다. 이 일에는 전임으로 일하는 중보 기도자들, 중보의 성벽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 부르짖을 이들이 필요하다.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의 중보 기도 선교사**

Some ask where intercessory missionaries are found in the New Testament. My response, “Where in the New Testament do we find leaders who do not prioritize prayer—starting with Jesus, the apostles, and others?” The New Testament highlights others who gave themselves in an extravagant way to prayer.

어떤 이는 신약에서 중보 기도 선교사라는 직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곤 한다. 내 대답은 이렇다,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와 다른 이들 모두, 기도를 우선 순위로 삼지 않은 지도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약은 넘치는 방법으로 자신을 기도에 헌신한 이들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Jesus spent long hours in prayer (Mk. 1:35; 6:46; Lk. 5:16; 6:12; 9:18, 28). Jesus valued Mary of Bethany’s choice to sit before Him; He called it the one thing needed (Lk. 10:38–42). He emphasized prayer, or “watching,” more than any other specific activity when speaking about the generation in which He returns (Mt. 24:42–43; 25:13; Mk. 13:9, 33–38; Lk. 21:36; Rev. 3:3; 16:15).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 (막 1:35; 6:46; 눅 5:16; 6:12; 9:18, 28). 예수님께서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그분 앞에 앉아 있겠다고 선택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 (눅 10:38–42). 그분은 그분의 재림에 세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른 어떤 일들보다 기도, 혹은 “깨어 있는 것”을 강조하셨다 (마 24:42–43; 25:13; 막 13:9, 33–38; 눅 21:36; 계 3:3; 16:15).

Paul embraced night-and-day prayer in various seasons and called widows to this ministry (1 Thes. 3:10; 1 Tim. 5:5; 2 Tim. 1:3). John the Baptist spent a lot of time communing with the Lord in the wilderness of Judea (Mt. 3), and the apostles were committed to their prayer lives as well (Acts 6:4). An angel explained to Cornelius that his continual prayers were a memorial before God (Acts 10:4).

바울은 여러 시즌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과부들을 이 사역에 초청했다 (살전 3:10; 딤후 5:5; 딤후 1:3).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으며 (마 3 장), 사도들 또한 기도하는 삶에 헌신했다 (행 6:4).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의 계속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 10:4).

Prayer was a high priority among the leaders in the New Testament (Acts 1:14, 24; 2:42; 3:1; 4:31; 6:4; 9:11; 10:2,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Rom. 8:26; 10:1; 12:12; 1 Cor. 7:5; 2 Cor. 1:11; 9:14; 13:7–9; Eph. 1:17–19; 3:14–20; 6:18; Phil. 1:4, 9–11; 4:6; Col. 1:3, 9–11; 4:2–3; 1 Thes. 3:10; 5:17, 25; 2 Thes. 1:11; 3:1; 1 Tim. 2:8; 4:5; Heb. 13:18; Jas. 5:13–18; Jude 20). Consider just a few of the many statements reflecting the value of prayer in the New Testament (Acts 2:42; 6:4; 12:12; 1 Thes. 3:10; 5:17).

기도는 신약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높은 우선 순위였다 (행 1:14, 24; 2:42; 3:1; 4:31; 6:4; 9:11; 10:2, 9, 30–31; 11:5; 12:5, 12; 13:3; 14:23; 16:16, 25; 롬 8:26; 10:1; 12:12; 고전 7:5; 고후 1:11; 9:14; 13:7–9; 엡 1:17–19; 3:14–20; 6:18; 빌 1:4, 9–11; 4:6; 골 1:3, 9–11; 4:2–3; 살전 3:10; 5:17, 25; 살후 1:11; 3:1; 딤후 2:8; 4:5; 히 13:18; 약 5:13–18; 유 20). 신약에서 기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급들 중 몇 가지만 생각해보라 (행 2:42; 6:4; 12:12; 살전 3:10; 5:17).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and in prayers. (Acts 2:42)

⁴²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we will give ourselves continually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cts 6:4)

⁴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 6:4)

It is easy to find leaders in the New Testament who were consistently engaging in prayer and the Word. Actually, it is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for leaders who neglect these. God’s kingdom work is accomplished in the place of prayer and outside of it. The three dimensions of missions work—continual prayer, mercy deeds, and sharing the gospel—must go together. Prayer causes the work of outreach to the lost and needy to be much more effective. Oswald Chambers said that “Prayer does not fit us for the greater work; prayer is the greater work.”

신약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이를 등한시 여긴 지도자들의 전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취되며, 이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한다. 선교 사역의 세 가지 차원 – 지속적인 기도, 긍휼을 부어주는 행동,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사역이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한다. 오스워드 챔버스는 말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다.”

Some are concerned that intercessory missionaries may develop lazy, isolated lives in prayer, detached from the real needs of people. Anyone who has prayed four hours in one day, with fasting, and then went out to preach the gospel, will know that the call to be an intercessory missionary is not for lazy people. Some ask if too much prayer leads intercessors to neglect walking in love for others. I have observed just the opposite.

어떤 이들은 중보 기도 선교사가 게으름, 기도로 고립된 삶,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떨어지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염려한다. 금식과 함께 하루에 4 시간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본 사람은 중보 기도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너무 많은 기도로 인해 중보 기도자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곤 한다. 나는 이와 정 반대의 일을 목격했다.

Night-and-day prayer is a practical expression of the commandment to love one another through which multitudes are blessed and delivered through prayer. Intercessors also grow in love for the ones they take up in prayer. When someone has a family member who is being tormented by a demon, that family member needs someone to cast the demon out. Jesus linked greater effectiveness in casting out demons to prayer and fasting. He spoke of prayer and fasting being needed when ministering to certain kinds of demonized people (Mt 17:21). In other words, the rigorous lifestyle of an intercessory missionary is one that embraces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to love God and others.

밤낮으로 하는 주야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제로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 중보 기도자들은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성장해나간다.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 사람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데 있어서 기도와 금식이 크게 효과가 있음을 연결해주셨다 (마 17:21, 역자주: 개역한글에는 생략되어 있음. 한글 KJV: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즉, 중보 기도 선교사의 철저한 삶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살아나가게 된다.

The Anna calling **안나의 부르심**

Anna was a “watchmen” who was set upon the wall in Jerusalem. We see an expression of Isaiah’s prophecy in Anna, who prayed in the temple night and day (Isa. 62:6; Lk. 2:36–38). She was a token of what will happen across the nations during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안나는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진 “파수꾼”이었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안나 안에 부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했다 (사 62:6; 눅 2:36-38). 그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일들의 징표이다.

Now there was one, Anna, a prophetess...She was of a great age, and had lived with a husband seven years from her virginity; and this woman was a widow of about eighty-four years, who did not depart from the temple, but served God with fastings and prayers night and day...she gave thanks to the Lord, and spoke of Him [Jesus] to all those who looked for redemption in Jerusalem. (Lk 2:36-38)

³⁶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³⁷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³⁸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눅 2:36-38)

Notice that Anna was a prophetess (v. 36), an intercessor (v. 37), and an evangelist (v. 38). The grace for prophetic ministry, intercession, and evangelism came together in one woman. Anna was widowed after living with her husband for seven years (v. 36), probably when she was in her mid-twenties, and that is when she began giving herself to night-and-day prayer. At 84 years old—approximately 60 years later—she was still doing it. Anna stayed faithful in her calling to long hours of prayer! What a remarkable woman! Anna represents those with the grace to sustain long hours of prayer for many years. Anna’s calling transcends gender and age—this calling is for male and female, young and old. I refer to some intercessory missionaries as having the “Anna calling,” by which I mean they have grace for much prayer and fasting.

안나가 여 선지자였으며 (36 절), 중보자였으며 (37 절), 복음 전도자(38 절)였던 것을 주목하라. 예언 사역과 중보, 복음 전도 사역의 은혜가 이 한 여인 안에 함께 부여졌다. 안나는 자신의 남편과 7년을 산 후에 과부가 되었으며 (36 절), 이는 아마 그녀가 20대 중반이었을 때일 것이다. 그리고 이 때가 바로 그녀가 자신을 주야 기도에 드리는 것을 시작한 때이다. 그녀가 약 84살이 되었을 때에도 (약 60년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안나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긴 시간의 기도를 통해 충성되게 서 있었다! 이 얼마나 놀랄만한 여인인가! 안나는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의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준다. 안나의 부르심은 성과 나이를 초월한다. 이 부르심은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몇몇 중보 기도 선교사들이 “안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곤 하는데, 이는 그들이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해 나갈 은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Anna shows us the most extreme example of the intercessory missionary lifestyle in the New Testament. She probably spent more hours in prayer each day than what we ask our intercessory missionaries to do. In this very hour, the Lord is wooing those with a heart and calling like Anna to the full-time occupation of worship and prayer. He is personally appointing and setting them into their places. The Lord is calling forth modern-day “Annas” in churches and prayer rooms around the world. We must celebrate the “Annas” that God raises up as a great gift to the Body of Christ and the prayer movement. These individuals need to be called forth, recognized, and released by their leaders to obey their God-given mandate.

안나는 신약에서 중보 기도 선교사의 삶의 모습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녀는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중보 기도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의 시간에, 주님은 안나와 같은 마음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전임 예배와 기도자로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고 계신다. 주님은 전 세계 가운데 교회와 기도실 안에서 현대의 “안나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안나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기도 운동에 있어서 큰 선물로서 함께 기뻐해야 한다. 각각의 개인들은 불러 일으켜지며,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들을 풀어줘야 한다.

Jesus made a reference to Isaiah’s prophecy about day-and-night prayer when He promised that it would result in a great release of justice to the earth (Lk. 18:1-8).

예수님께서서는 주야 기도를 통해 땅에 정의를 크게 부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주야 기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눅 18:1-8).

Sha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When the Son of Man comes [second coming],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7-8, NAS)

⁷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In verse 8, Jesus connected the call to night and day prayer to the timing of His return to the earth.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is parable was given in conclusion to what He had just taught about the end times in Luke 17:22-36. In other words, He connected His release of justice in the earth during the end times to night-and-day prayer, and, in verse 8, Jesus referred to the generation in which He returns.

8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야 기도로의 부르심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과 연결하셨다. 이 비유가 그분이 방금 마지막 때에 대해 누가복음 17:22-36 절에서 가르치신 것의 결론으로서 주어진 것을 주목하라. 즉, 그분은 마지막 때 동안에 온 땅에 정의가 부어지는 것을 주야 기도와 연결 지으셨다. 그리고 8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의 세대에 대해 언급하셨다.

Intercessory Missionaries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의 증보 기도 선교사

We find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Old Testament about the full-time occupation of singers who ministered to God night and day. David commanded all the kings after him to uphold the order of worship that he received from God, because it was God's command (2 Chr. 29:25; 35:4, 15; Ezra 3:10; Neh. 12:45).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 밤낮으로 사역한 전임으로 노래하는 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의 이후 왕들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배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대하 29:25; 35:4, 15; 스 3:10; 느 12:45).

[Hezekiah]...***stationed the Levites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 cymbals, with stringed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David...for thus was the commandment of the LORD.*** (2 Chr. 29:25)

²⁵[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대하 29:25)

David was first one in Scripture to establish those who worshiped as a full-time occupation (1 Chr. 9:33; 16:37; 23:5; 25:7; 2 Chr. 31:4; 8:12-14; 31:4-6, 16; 34:9, 12; Neh. 10:37-39; 11:22-23; 12:44-47; 13:5-12).

다윗은 성경에서 전임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운 첫 번째 사람이었다 (대상 9:33; 16:37; 23:5; 25:7; 대하 31:4; 8:12-14; 31:4-6, 16; 34:9, 12; 느 10:37-39; 11:22-23; 12:44-47; 13:5-12).

These are the singers...who were free from other duties; for they were employed in that work day and night. (1 Chr. 9:33)

³³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상 9:33)

He established 4,000 musicians and 4,000 gatekeepers (1 Chr. 23:5; 25:7). David set into place about 10,000 intercessory missionaries—called Levites—some were singers and musicians, and others were gatekeepers. (Today, I would add sound technicians to this list, because, in my opinion, the soundboard is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 on worship teams). The gatekeepers took care of the buildings and finances and did many other activities to support the

ministry to God in the temple. In our context, this speaks of those who help in financial or event management, janitorial or organizational service, running the seminars, etc.

그는 4,000 명의 음악 하는 자들과 4,000 명의 문지기를 세웠다 (대상 23:5; 25:7). 다윗은 레위인으로 불리는 약 10,000 명의 중보 기도 선교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자였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 그리고 문지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날, 나는 이 리스트에 음향 전문가를 넣고 싶다. 왜냐하면 내 의견으로 음향 기기는 예배팀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이다). 문지기들은 건물과 재정을 돌보았으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각종 사역들을 뒷받침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재정을 관리하고 이벤트 운영을 하고, 청소를 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하거나 세미나를 여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The singers were employed in the work day and night and thus were freed from other duties. In other words, they did not have another job outside their temple responsibilities. Their job was hard work. They sang and played their instruments—I imagine they had many “worship team practices” and had to grow in musical skill, knowledge of the Scripture, and many other related activities. God commanded David to establish this ministry of night-and-day worship. This required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and it was very expensive. David insisted on making this costly investment of time and money, knowing that the Lord commanded it and seeing that the God of Israel is worthy of such praise.

이 노래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노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다. 즉,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일은 고된 일이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자신의 악기를 연주했다 – 나는 그들이 많은 “예배팀 연습”을 하며,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을 상상해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주야로 예배 드리는 사역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이는 많은 재정이 드는 일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시간과 재정의 많은 희생이 따르는 투자를 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When Israel went astray, God raised up spiritual reformers with a vision to restore worship as David had commanded it. There were seven generations in the Old Testament that experienced “revivals.” Each honored the command that God gave David to restore Davidic worship—with intercessory missionaries.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명령했던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을 가진 영적인 개혁가들을 일으키셨다. 구약에서는 “부흥”을 경험한 7 개의 세대가 있다. 각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명령을 귀하게 여겼고 다윗의 예배, 중보 기도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을 회복했다.

1. Around 970 BC, Solomon established the singer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David (2 Chr. 8:14).

BC 970 년경, 솔로몬은 다윗이 지시한대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대하 8:14).

And, according to the order of David his father, he [Solomon] appointed the divisions of the priests for their service, the Levites for their duties (to praise and serve before the priests) as the duty of each day required...for so David the man of God had commanded. (2 Chr. 8:14)

¹⁴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대하 8:14)

2. Around 870 BC, Jehoshaphat’s reform also included establishing singers and musicians in their place to sing to the Lord (2 Chr. 20:19–28).

BC 870 년경, 여호사밧의 개혁 또한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을 동반했다 (대하 20:19-28).

Then the Levites...stood up to praise the LORD...he appointed those who should sing to the LORD...they came...with stringed instruments...to the house of the LORD. (2 Chr. 20:19-28)

¹⁹ ...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²¹ ...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 ²⁷ ...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 ²⁸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대하 20:19-28)

3. About 835 BC, Jehoiada, the high priest, restored temple worship in the order of King David, with singers and musicians. The young future King Jehoash (Joash) was only seven years old (2 Chr. 23:18).

BC 835 년경, 대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예배를 다윗 왕이 명령한대로 노래하는 자와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며 회복했다. 미래에 왕이 될 어린 왕 요아스는 이때 겨우 7 살이었다 (대하 23:18).

Jehoiada appointed the oversight of the house of the LORD to...the Levites...with singing, as it was established by David. (2 Chr. 23:18)

¹⁸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 (대하 23:18)

4. Hezekiah's revival (about 725 BC) included restoring singers as David commanded (2 Chr. 29:25-27).

히스기야의 부흥 때도 (BC 725 년경) 다윗이 명령했던 노래하는 자들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 (대하 29:25-27).

He stationed the Levites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stringed instruments...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David...the song of the LORD also began... (2 Chr. 29:25-27)

²⁵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 ²⁷ ...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 (대하 29:25-27)

5. Around 625 BC, Josiah's revival also restored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into their place, just as David commanded the kings of Israel to do (2 Chr. 35:3-15).

BC 625 년경, 요시아의 부흥 때에도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한대로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위치를 회복했다.

Then he said to the Levites...“Prepare yourselves...following the written instruction of David...” and the singers...were in their place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 (2 Chr. 35:3-15)

³ ...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 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 스스로 준비하고 ... ¹⁵ ...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 (대하 35:3-15)

6. Zerubbabel lived about 500 years after David, and during this time they were still putting singers in place because it was the command of David. Was this thing burning in God's heart? In 536 BC, Zerubbabel established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as a full-time occupation to worship God because King David commanded that this be done in Israel (Ezra 3:10-11; Neh. 12:47).

스룹바벨은 다윗 이후 약 500 년이 지난 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명령을 따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던 일인가? BC 536 년, 스룹바벨은 전임으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임 사역자로 세웠는데, 이는 다윗 왕이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야 함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스 3:10-11; 느 12:47).

The Levites...to praise the LORD, according to the ordinance of David. (Ezra 3:10-11)

¹⁰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스 3:10-11)

7. In 445 BC, Ezra and Nehemiah established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because King David commanded it. God commanded Israel to support the singers financially in the same way that David had done (2 Chr. 8:14; 31:5–16; Neh. 11:23; 12:44–47; 13:5–12).

BC 445 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임으로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이는 다윗 왕이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노래하는 자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명령하셨다 (대하 8:14; 31:5–16; 느 11:23; 12:44–47; 13:5–12).

The Levites...give thanks, group alternating with group,...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Both the singers and the gatekeepers kept the charge of their God...according to the command of David...In the days of Zerubbabel and in the days of Nehemiah all Israel gave the portions [financial] for the singers and the gatekeepers, a portion for each day. (Neh. 12:24, 45-47)

²⁴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 ⁴⁵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 ⁴⁷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재정]을 주되 ... (느 12:45-47)

Intercessory Missionaries throughout History

역사 속에 있었던 중보 기도 선교사

The Lord has led many throughout history to establish night-and-day prayer ministries. Throughout church history I see a golden thread of the Spirit testifying that this is on God's heart. Although it is clear that the Holy Spirit has not emphasized this calling to the whole body of Christ through the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He clearly called some to this ministry. Thus, we see a regular witness of it. This is a testimony that God wants this sort of extravagant ministry to Him.

주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을 주야 기도 사역을 세우는 일로 이끄셨다. 나는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일임을 증거하는 일들의 연속으로 본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2,000 년을 통해 이 부르심을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게 강조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명확하게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규칙적으로 증거된 것을 보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이러한 종류의 넘치는 사역을 원하신다는 증거이다.

The order of worship that God commanded David to embrace—establishing full-time singers and musicians in God's house—is timeless and valid today, though the application of this command has differed in each generation and culture.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신 예배의 규례, 즉 하나님의 집에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부분이다. 물론 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각 세대와 문화 안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왔다.

Throughout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they have had different titles. However, we see the biblical values behind this occupation as they did the work of missions from a lifestyle of being deeply engaged in prayer, worship, and the Word.

2,000 년의 교회를 통해, 이 사역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에 깊이 연결된 삶 가운데 선교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 뒤에 깔린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볼 수 있다.

One of the most dramatic expressions of 24/7 intercessory prayer began with Comgall, a monk in Bangor, Ireland, in 558 AD. After Comgall's death in AD 602, the annals reported that 3,000 monks had joined his monastery that

maintained a 24/7 prayer ministry lasting for over 300 years. It became an influential missions-sending community, famous for its choral psalmody and unceasing prayer.

24/7 중보 기도의 가장 극적인 표현 중의 하나는 AD 558 년, 아일랜드 방고르의 수도사 콤갈(Comgall)로부터 시작되었다. AD 602 년에 콤갈의 죽음 이후, 기록에 의하면 3,000 명의 수도사들이 그의 수도원에 합류해서 24/7 기도 사역을 시작했으며 이는 300 년이나 지속되었다. 이곳은 영향력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며, 이곳은 성가 시편과 끊이지 않는 기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In those days, most of the people who sustained 24/7 prayer ministries did it as their full-time occupation, and because of this, I refer to them also as “intercessory missionaries.” Of course, they did not use that term. Most who embraced this were monks, priests, or nuns who lived in monastic communities.

이 시기에, 24/7 기도 사역을 계속해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자신의 전업 사역으로 행했는데, 나는 이 부분으로 인해 그들을 또한 “중보 기도 선교사들”이라고 부른다. 물론 그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일을 행해나간 대부분은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간 수도사들, 사제, 수녀들이었다.

Most of these monastic prayer communities—far from living in total isolation—were involved in outreach to the cities near to them. Many ministries from all parts of the Body of Christ have mobilized 24/7 prayer ministries, including those with Celtic, Orthodox, Catholic, and Protestant traditions.

대부분의 이러한 수도원 기도 공동체들(완전한 고립 속에 살지 않음)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도시로 선교 사역을 행했다. 켈틱, 동방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전통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나온 많은 사역들이 24/7 기도 사역을 동원했다.

Alexander Akimites

알렉산더 아키미츠

Around AD 380, Alexander established a monastery near the Euphrates River that maintained 24/7 worship and prayer. He organized rotating choirs into shifts to create uninterrupted prayer and worship twenty-four hours a day. He first organized this perpetual praise near the Euphrates River—it lasted for twenty years in this location. Then he and seventy monks moved to Constantinople in AD 400, where another 300 monks joined them to organize again 24/7 prayer with praise that lasted much longer as a movement. Since their prayer with praise never stopped, their group was referred to as “the order of the Acoemetæ” (literally, the sleepless ones).

AD 380 년경, 알렉산더는 유브라테 강 근처에 수도원을 세웠고, 이곳에서 24/7 예배와 기도가 유지되었다. 그는 하루 24 시간 동안 중단되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만들어내기 위해 찬양대가 돌아가며 섬기는 일을 조직했다. 그는 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찬양을 유브라테 강 근처에서 조직했으며, 이는 이 장소에서 20 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와 70 명의 수도사들은 AD 400 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후 그곳에서 300 명의 수도사들이 합류해서 또 다시 24/7 찬양과 함께 하는 기도 운동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들의 찬양과 함께 한 기도가 절대 멈추지 않았기에, 이들 그룹은 “잠들지 않는 자들”이라 불렸다.

After Alexander’s death in AD 430, the monastery’s influence grew until, at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it housed over 1,000 monks committed to day-and-night prayer—intercessory missionaries. They sang hymns and doxologies throughout the night and day. Similar ministries of 24/7 prayer and psalmodic, choral praise were established in other monasteries at that time along the Euphrates and in Persia.

AD 430 년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수도원의 영향력은 5 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커져갔으며, 주야 기도에 헌신한 1,000 명이 넘는 수도사들(중보 기도 선교사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찬송가와 찬가들을 밤낮으로 불렀다. 이와 유사한 24/7 기도와 찬송, 함께 찬양하는 사역은 그 당시의 유브라테 강과 페르시아에 걸쳐있는 다른 수도원들에서도 세워졌다.

Bangor, Ireland 아일랜드의 봉고르

In AD 433, St. Patrick returned to Ireland (having been enslaved on the island previously) to preach the gospel. In the twelfth century, Jocelin reported that St. Patrick had come to a valley on the shores of the Belfast Lough where he and his comrades beheld a vision of heaven. Jocelin wrote, “They beheld the valley filled with heavenly light, and with a multitude of heaven, they heard, as chanted forth from the voice of angels, the psalmody of the celestial choir.” From then on, the place near Bangor was referred to as “The Valley of Angels.”

AD 433 년에 성 페트릭은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 아일랜드에 노예로 잡혀있었다). 12 세기의 조셀린에 의하면 성 페트릭은 벨파스트만 해변의 계곡으로 와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늘의 환상을 목격했다. 조셀린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은 계곡이 하늘의 빛과 하늘의 수 많은 자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의 음성으로부터 천상의 찬양대의 성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이때로부터 봉고르 근처의 장소는 “천사들의 계곡”이라고 불렸다.

Approximately 100 years later, Comgall established his monastery in that exact valley. Over 3,000 monks joined him in a full-time way. Together they maintained a 24/7 house of prayer with worship that continued for more than 300 years. Comgall’s Bangor monastery practiced continuous worship that was antiphonal in nature and based on Patrick’s vision. In the twelfth century, Bernard of Clairvaux spoke of Comgall and Bangor, stating, “the solemnization of divine offices was kept up by companies, who relieved each other in succession, so that not for one moment was there an intermission.”

이로부터 약 100 년 이후, 콤갈은 바로 이 계곡에 자신의 수도원을 세웠다. 3,000 명이 넘는 전임 수도사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은 함께 예배와 함께하는 24/7 기도의 집을 300 년이 넘게 계속해 나갔다. 콤갈의 방고르 수도원은 패트릭의 환상에 근거해서, 본질상 화답하는 예배로 쉬 없는 예배를 드렸다. 12 세기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콤갈과 방고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하늘의 직임을 엄숙히 지켜나가는 것이 계속되었으며, 이들은 서로 연속적으로 교대하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도록 했다.”

These monks, through practicing continual prayer and worship, were stirred to evangelize the lost wherever they went. They were sent out from Bangor as missionaries to Europe. Wherever they settled, they first established constant praise and adoration to God—their mission work flowed from a foundation of prayer. These intercessory missionaries were sent out to preach the gospel throughout Europe, leading multitudes to Jesus.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is. For instance, Colombanus set out from Bangor with twelve brothers to plant monasteries that combined prayer and mission work throughout Switzerland. Another example is St. Martin, who practiced continual antiphonal worship and established monasteries throughout Gaul (France).

이 수도사들은 쉬이 없는 기도와 예배를 계속해나가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던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무되었다. 그들은 방고르로부터 유럽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던지,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을 드렸다. 그들의 선교 사역은 기도의 기초로부터 흘러나왔다. 이 중보 기도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여기에는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콜롬바누스는 12 명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와 선교 사역이 결합된 수도원을 스위스에 세우기 위해 방고르로부터 출발했다. 또 다른 예로 성 마틴은 쉬이 없이 화답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프랑스의 가울 (Gaul) 지방에 수도원을 세웠다.

Abbot Ambrosius

아봇 암브로시우스

Around AD 522, in Switzerland, Abbot Ambrosius organized choirs of monks who sang the Psalms in rotating shifts, continuing day and night. They continued this for nearly 400 years—until around AD 900, impacting monasteries all

over France and Switzerland. These intercessory missionaries were effective in preaching the gospel and impacting many for Jesus.

AD 522 년경, 스위스의 아봇 암브로시우스는 수도사들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시편을 교대로 돌아가며 밤낮으로 부르도록 했다. 그들은 이것을 거의 400 년 가까이, 900 년경까지 지속하며, 프랑스 전역과 스위스의 수도원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 중보 기도 선교사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했다.

Cluny, France

프랑스의 클루니

Around AD 1000, the monastery at Cluny in central France began to pray the liturgy, because they were convinced that doing so was to participate in the liturgy of heaven as seen in Revelation 4. Hundreds of monastic communities throughout Europe followed the example of Cluny by embracing 24/7 prayer with worship. Thus they were catalytic in raising up intercessory missionaries who established houses of prayer as monastic communities, doing the work of the kingdom.

AD 1000 년경에 프랑스 중앙에 있는 클루니의 수도원은 예전(예배 형식, liturgy)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것을 함으로 계시록 4 장에 나타난 하늘의 예전에 참여하게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수백 개의 수도원 공동체들이 예배와 함께 드리는 24/7 기도를 받아들이며 클루니의 예를 따라갔다. 따라서 이들은 수도원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기도의 집을 세우는 중보 기도 선교사를 세우는 데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갔다.

Bernard of Clairvaux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Just after AD 1100, Bernard, together with his 700 monks in Clairvaux, France, organized into day-and-night prayer that continued for many years, resulting in a dynamic release of evangelism through signs and wonders across Europe. Bernard promoted continual prayer; reports from visitors to the monastery at Clairvaux speak of the monks singing their prayers through the night and working in silent meditation through the day.

AD 1100 년 직후, 베르나르는 700 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프랑스의 클레르보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야 기도를 조직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베르나르는 쉬 없는 기도를 촉진시켰다; 클레르보의 수도원의 방문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곳의 수도사들은 밤에는 자신의 기도들을 노래했으며, 낮에는 침묵으로 묵상하며 일을 했다고 한다.

The Moravians and Count Zinzendorf

모라비안과 진젠도르프 백작

In 1727, Count Zinzendorf, a young and wealthy German nobleman, committed his estate in Germany to 24-hour-a-day prayer ministry. He renamed his estate Herrnhut, (literally “Watch of the Lord”). About 300 believers moved from Bohemia to Zinzendorf’s estate, forming the Herrnhut community. At that time, Zinzendorf gave up his court position to lead this new ministry.

1727 년, 젊고 부유한 독일 상류층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의 자신의 사유지를 하루 24 시간의 기도 사역에 내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유지를 헤른헛 (문자적으로는 “주님이 지켜보심, 보호하심”)이라고 이름 지었다. 약 300 명의 성도들이 보헤미아에서 진젠도르프의 사유지로 옮겨와서 헤른헛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당시에 진젠도르프는 이 새로운 사역을 이끌기 위해 법정에서 일하던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다.

They committed to pray in hourly shifts around the clock, all day and night, every day, taking inspiration from Leviticus 6:13, “*The fire must be kept burning; it must not go out.*” This prayer meeting continued non-stop for the next 100 years. From the prayer room at Herrnhut came a missionary zeal that has hardly been surpassed in Protestant history. By 1776, over 200 missionaries had been sent out from this small community at Herrnhut. These were the first Protestant “intercessory missionaries.”

그들은 한 시간마다 매일 주야로 돌아가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이는 레위기 6:13 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이 기도 모임은 이후 100 년 동안이라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헤른헛의 기도실로부터 개신교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교를 향한 열심이 쏟아져 나왔다. 1776년에는 200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헤른헛의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이들은 개신교 최초의 “중보 기도 선교사들”이었다.

Zinzendorf was the leader of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movement in history. He sent out missionaries, two by two, to the unreached people groups of the earth. As they were sent out, the prayer furnace back home in Herrnhut covered them in prayer.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movement married the prayer aspect of the Great Commission together with evangelism. Count Zinzendorf saw prayer and missions as inseparable.

진젠도르프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 운동의 리더였다. 그는 선교사들을 둘씩 팀을 이루어 온 땅의 미전도 종족으로 보냈다. 그들은 보냄을 받았고, 헤른헛의 기도의 용광로는 그들을 기도로 보호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 운동은 지상 대 명령의 기도의 측면을 복음 전도와 결합시켰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기도와 선교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Throughout history we see many examples of the irrefutable law in God’s kingdom—in God’s timing, revival in the church leading to significant evangelistic zeal and effectiveness follows wherever night-and-day prayer is established. This law is seen in the fruit of the labors of the historical monastic prayer communities who led multitudes of people to Jesus.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의 예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중대한 복음 전도의 열정과 효과로 이어지는 교회의 부흥은 주야로 드러지는 기도가 세워진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수도원 기도 공동체들의 수고로 인한 열매에서 볼 수 있다.

What do Intercessory Missionaries do in Prayer Rooms?

중보 기도 선교사는 기도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What do intercessory missionaries do in a prayer sanctuary?

중보 기도 선교사들은 기도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1. We ***minister to God*** by declaring His worth unceasingly, reflecting the way He receives worship continually in heaven (Mt. 6:10). We magnify the supremacy of Jesus, spreading His fame by declaring His worth, beauty, and riches, calling others to love and obey Him and give their allegiance to Him.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nations join the choirs of heaven by ministering to God in this way. He is worthy.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역한다**. 이는 그분이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을 반영하여 그분의 합당하심을 쉼 없이 선포함으로 이루어진다 (마 6:10). 우리는 예수님의 합당하심과 아름다움, 그분의 부요함을 선포하며, 다른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도록 부르며, 그분께 그들의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 그분의 명성을 전하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높인다. 열방의 수백 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역함으로 하늘의 찬양과 함께 하게 된다. 그분은 합당하시다.

2. We ***labor in intercession*** to release God’s power to win the lost, revive the Church, and impact society as we do works of justice and compassion.

우리는 **힘써 중보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를 정의와 공휴의 일과 함께 하여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3. We **grow in intimacy with God** by personally encountering Him through His indwelling Spirit, receiving greater grace to love, obey, and partner with Him, as we are fascinated by who He is.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성장시켜 나간다**. 우리는 이를 그분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분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경험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로 인해 매혹되어 그분을 사랑할 더 큰 은혜를 얻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역하게 된다.

4. We **grow in the understanding of God's Word**, gaining insight into His will, ways, and salvation and learning about the unique dynamics of His end-time plan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We serve others in an important way by taking the time and effort to grow deeper in understanding the Word, that we may help others understand God's heart and will for this hour of history.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성장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그분의 뜻과 방법, 구원하심을 알게 되며, 그분이 이 땅을 다가올 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마지막 때의 계획의 독특한 역동성에 대해 배워나가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나갈 수 있다.

The Prayer Movement Today

오늘날의 기도 운동

The Holy Spirit has raised up thousands of new prayer ministries in the last ten to twenty years. In 1984, the number of 24/7 houses of prayer in the world was fewer than 25. Today, there are over 10,000—most of that growth has been in the last ten years. They are springing up all over the globe at a staggering rate. Such momentum in prayer cannot be attributed to human ingenuity, but rather to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서는 지난 10~20년 사이에 수천 개의 새로운 시도 사역들을 일으키셨다. 1984년에는 세계의 24/7 기도의 집의 수는 25 개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은 10,000 개가 넘는 기도의 집이 있고, 이 성장의 대부분은 지난 10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믿기 어려운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성장세는 인간의 계획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며,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The significant increase of new 24/7 prayer ministries and of large prayer events in stadiums is a prophetic sign of the times—a sign of the approaching day of the Lord's return. In cities around the world, new 24/7 prayer ministries are being established. From Kiev, Bogota, and Jerusalem to New Zealand, Cairo, Cape Town, and Hong Kong, men and women are responding to the Spirit's leadership in this.

새로운 24/7 기도 사역들과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기도 모임의 두드러진 증가는 시대에 대한 예언적인 표적이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가가고 있다는 표적이다.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24/7 기도 사역들이 세워지고 있다. 키예브(Kiev), 보고타, 예루살렘에서 뉴질랜드, 카이로, 케이프 타운, 홍콩 등지에서는 남녀들이 이 일에 대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있다.

Despite the pressures and inherent dangers, we see 24/7 prayer centers coming forth in the Muslim world, in nations like Egypt, Turkey, Syria, Indonesia, and Lebanon.

어려움과 내재적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집트, 터키, 시리아, 인도네시아, 레바논과 같은 무슬림 세계에서도 24/7 기도 센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God's desire to be worshiped on earth as He is in heaven has not changed. I believe that some of the principles expressed in the order of worship that God commanded David to embrace are timeless, such as establishing the full-time occupation of singers and musicians in God's house.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셨던 예배의 규례에 드러나 있는 몇 가지 원리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는 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Not everyone is called to be an intercessory missionary. *The greatest ministry is to do the will of God.* In other words, the greatest ministry you can have is the one to which God called you. If He called you to serve in the marketplace or in your home, don't despise your calling by imitating the ministry of another. We must embrace our own, individual calling, because that it is the highest calling for us.

모든 사람들이 중보 기도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일터나 당신의 집에서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의 사역을 흉내를 냈으므로 당신의 부르심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높은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The Holy Spirit has not emphasized the calling to night-and-day worship and prayer worldwide throughout church history, but He is now calling many ministries to embrace it. ***I do not believe that it is God's will for every local church or ministry to host 24/7 worship in their building,*** but rather I believe that He plans to establish it in each city or region of the earth. This can happen if many local churches partner together in the work of night-and-day prayer. The practical application will differ in each culture, in each city, and in each nation.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주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부르심을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많은 사역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부르고 계신다. **나는 모든 지역 교회나 사역 단체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24/7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이것을 지구상의 각 도시와 지역들에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일은 많은 지역 교회들이 주야 기도의 일에 함께 협력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일의 실제적인 적용의 모습은 각각의 문화와 도시, 각 나라에 따라 다를 것이다.

Many are asking the Lord to establish 24/7 prayer with worship in every tribe and tongue before the Lord returns—not in one building, but in every region of the earth, uniting many ministries together to accomplish the work. Imagine a missions movement that reaches every tribe and tongue—the gospel being preached in every language—deeply connected to 24/7 prayer with worship.

많은 이들이 주님께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모든 종족과 방언 안에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24/7 기도를 세워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연합함으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다. 모든 종족과 방언에게 다가가는 선교 운동, 즉 복음이 모든 언어권으로 전파되는 일이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24/7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Will you join me in asking the Lord to establish one million full-time intercessory missionaries before the Lord returns, whether they are singers, musicians, sound technicians, intercessors, or gatekeepers maintaining the systems that support these prayer ministries? For some of you, this is your calling—your personal story is deeply linked to God's plan related to the end-time prayer movement. What a glorious privilege!

주님의 재림 전에 백만 명의 중보 기도 선교사들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저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이건, 악기를 연주하는 자이건, 음향 기술자나 중보 기도자이건, 또는 이 기도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지기이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일 것이며,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는 마지막 때의 기도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